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年 2月  
碩士學位 論文

『それから』 연구

-代助의 結婚問題를 중심으로-

朝鮮大學校 大學院

東洋學科

牟 나 리

# 『それから』 연구

-代助의 結婚問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orekara  
Centering on Daisuke's marriage-

2014年 2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東洋學科

牟 나 리

# 『それから』 연구

指導教授 曹 榮 錫

이 論文을 碩士學位請求 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13年 10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東洋學科

牟 那 里

牟나리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합니다

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朴 青 國 (印)

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金 熙 照 (印)

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曹 榮 錫 (印)

2014年 12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I. 序論	1
II. 本論	4
1. 代助의 人物의 性格	4
2. 代助의 結婚問題	11
1) 代助의 結婚觀과 政略結婚의 인과관계	
① 理想主義者로서의 代助의 結婚觀	11
② 政略結婚의  희생양으로서의 代助	18
2) 代助의 自然으로의 回歸	25
3. 代助의 職業觀의 變化	36
III. 結論	44
IV. 參考文獻	46

## ABSTRACT

Natume Souseki(1867-1916, hereafter Souseki) represented conflicts due to love and money in human life, which was much admired by readers. Among his works, 『Sorekara』 represented human conflicts very well and was published serially from June 27, to October 14, 1909 in the 『Asahi Newspaper』 in Tokyo and Osaka.

When 『Sorekara』 was examined centering on Daisuke's marriage, two questions were presented: The first was why Daisuke delayed his arranged marriage for three years. He tried to delay it as much as he possibly could although he said he could marry as there was no harm in it as his father recommended. So, this study is to specifically speculate on the reasons why he delayed the marriage. The second question is why he decided to continue his relationship with Michiyo, Hiraoka's wife while denying the arranged marriage with Sagawa. This study suggested that he had desired to marry Michiyo, not Sagawa because he followed his own ideas.

In speculating on 『Sorekara』 -Centering on Daisuke's marriage-, the personality of the character named Daisuke, his marriage and changes in his views on work were analysed.

First, he was an idealist derived from the idle intelligentsia as he was trained by his father. Second, the issue of Daisuke's marriage was divided into causal effects between Daisuke's views on marriage and arranged marriage, and his recovery to nature. Of the two, his views on marriage as an idealist were speculated on centering on analysis of the personality of the character. In respect to Daisuke as a scapegoat for the arranged marriage, what sacrifices his family wanted him to make were analysed. Third, for Daisuke's recovery to nature, what influence did Michiyo, who was naturally selected by Daisuke, have on his marriage through their past and present, and his feelings before and after he selected Michiyo were examined. Finally, changes in his views on work before and after he decided to select Michiyo were investigated.

To sum up the results above: First, Daisuke has lived as an idle intelligentsia based on his father's financial power, which kept him out of touch with reality and had an influence on his ideals. He criticized and was negative about Japanese society while living as an idle intelligentsia and he had an attitude of *nil admirari* as he felt useless as he practiced what he was taught by his father.

Second, the geisha theory as one of his views on marriage criticized urban people who considered arranged marriage or divorce as easy and includes his mind to marry for love.

Third, his family did not respect Daisuke's personality and tried to gain short-term interest through the arranged marriage.

Fourth, his recovery to nature means that he gave up his life as an idle intelligentsia and decided to marry Michiyo while confirming Michiyo's never-ending love through reunion of the Hiraoka couple although he tried to live as an idle intelligentsia.

Fifth, Daisuke realized that his affluent life was replaced by a life where people have to work hard to get food and money as he selected Michiyo. When he left his home to get a job in the final scene, it became a real opportunity for him to grow up to be an adult and join society.



## I. 序論

나쓰메 소세키(1867-1916, 이하 소세키)는 인간이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돈과 사랑으로 인한 갈등을 작품에 표현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작가이다. 그의 작품 가운데 『それから (그 후)』 (이하 『그 후』)는 인간의 돈과 사랑의 갈등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1909년 6월27일부터 10월14일까지 110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그 후』는 『三四郎』, 『門』과 함께 소세키의 삼부작 중의 하나이다. 『그 후』는 다이스케(代助)와 히라오카(平岡)가 여주인공 미치요(三千代)를 두고 일어나는 갈등을 묘사하였으며, 특히 일본 사회의 모순을 주인공 다이스케의 내적갈등으로 표현하였다. 소세키는 개성이 중시되는 현대에 ‘결혼’이라는 제도는 시대착오적<sup>1)</sup>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견해를 찾아볼 수 있는 작품으로는 『그 후』 외에도 『行人』, 『明暗』 등이 있다. 『行人』, 『明暗』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남자들의 가부장적인 성격 때문에 여자가 변한다는 결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에서는 그의 비판적 시각이 결혼을 넘어서 결혼제도에도 보이고 있다.

『그 후』 작품을 연구한 논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中山和子(나카야마 카즈코)의 『『それから』 - <自然の昔>とは何か』로 다이스케와 미치요의 <自然の昔>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해석하여 「<自然の昔>는 미치요에게서 찬연히 빛날 정도로 명백하다」고 논하였다. 山田有策(야마다 유사쿠)의 『語り手の共犯-代助と三千代』는 「아마도 다이스케는 스가누마라는 비호자의 아래에서 미치요와의 사랑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면서 다이스케가 남과의 관계를 회피했던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백합과 반지의 상징성을 밝힌 논문인 遠藤裕(엔도 유우)의 『指輪のゆくえ-『それから』の<物語>』에서는 다이스케와 미치요의 관계에서 반지가 어떤 구실을 하는지를 해석하고 있다.<sup>2)</sup> 齋藤英雄(사이토 히데오)의 『「眞珠の指輪」の意味と役割-『それから』の世界』는 『그 후』를 「반지」라는 소도구로 치밀하게 해석하

1) 유상희 『나쓰메 소세키 연구』 보고사 2001 p.262

2) 『國文學-夏目漱石の全小説を讀む』 岩波書店 1994 1月 p.122-123

고 있고, 浜野京子(하마노 쿄코)의 『<自然の愛>の兩儀性-『それから』における<花>の問題-』는 사랑의 선물/형벌이라는 『그 후』의 양의성을 「꽃」의 이미지에서 해석하고 있다.<sup>3)</sup> 다음으로 국내논문을 살펴보면 용석인의 『明治青年의結婚觀-『夏目漱石』의 作品을 中心으로-』<sup>4)</sup>에서는 다이스케와 아버지의 결혼관의 차이에서 생기는 대립과 갈등 및 자연으로 회귀한 다이스케의 모습까지 논하고 있고, 신현철의 『漱石文學에 있어서 戀愛와 女性의 問題-『それから』를 中心으로-』<sup>5)</sup>에서는 『그 후』에 나오는 다이스케의 미치요에 대한 애정을 예고이즘이라고 보고 그의 성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상으로 『그 후』에 관한 선행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다이스케, 미치요와 관련한 자연을 다룬 논문으로, 다이스케의 결혼관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논자는 다이스케의 결혼문제를 중심으로 그의 결혼관과, 이 후의 자연으로의 회귀 및 변화되는 직업관까지 설명하고자 한다.

『그 후』를 다이스케의 결혼문제 중심으로 살펴보면 의문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다이스케는 왜 정략결혼 문제를 3년간이나 미뤄왔는가이다. 그는 아버지가 권유한 정략결혼에 대해 「자신에게 해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정략결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가능한 한 그것을 미루려고 애썼다. 때문에 그가 정략결혼을 미뤄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다이스케가 사가와(佐川) 아가씨와의 정략결혼을 거절하고 히라오카의 부인인 미치요와 관계를 지속하겠다고 결심한 이유이다. 다이스케가 미치요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최후에는 사가와 아가씨가 아닌 그녀를 선택한 이유가 자신의 이상을 따른 것이라고 보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다이스케의 결혼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봄에 있어서 크게 代助의 人物의 性格, 代助의 結婚問題, 代助의 職業觀의 變化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代助의 人物의 性格」에서는 그의 성격이 고등유민에서 기인한 이상

3) 生方智子 『『それから』論ベスト30』 小森陽一 石原千秋 『漱石研究』(第10号) 翰林書房 1998 p.138

4) 용석인 『明治青年의結婚觀-『夏目漱石』의 作品을 中心으로-』 관동대학교 1993

5) 신현철 『漱石文學에 있어서 戀愛와 女性의 問題 -それから를 中心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주의자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살펴보면, 그가 아버지의 훈육방식으로 인해 고등유민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살펴본다. 둘째, 「代助의 結婚問題」에서는 「代助의 結婚觀」과 「政略結婚의 인과관계」와 「代助의 自然으로의 回歸」로 나누어 보고, 그 중에서 「代助의 結婚觀과 政略結婚의 인과관계-理想主義者로서의 代助」에서는 인물의 성격 분석을 중심으로 다이스케의 결혼관을 살펴본다. 「政略結婚의 희생양으로서의 代助」에서는 가족이 다이스케의 정략결혼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에게 원하는 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代助의 自然으로의 回歸」에서는 그가 사가와 아가씨를 거절하고 선택한 자연의 발로라는 미치요가, 그의 결혼문제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들의 과거, 현재를 통해 살펴보고 미치요를 선택하기 전과 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까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代助의 職業觀의 變化」에서는 미치요를 만나기 전의 직업관과 미치요를 선택하겠다고 결심한 후의 직업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작품의 인용은 『それから』(新潮文庫、1948、11)를 사용하였고, 작품에서의 인용은 모두 논자가 번역처리 하였으며, 인용문 끝에 페이지 수만을 밝혔다.

## II. 本論

### 1. 代助의 人物의 性格

다이스케의 인물의 성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후』의 시대 배경이 되는 메이지 시대(明治時代)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메이지 시대(1868-1912)는 동서양의 가치관 혼란으로 인해 국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에 곤란을 겪던 시대였다. 김송은은 이러한 일본의 근대화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의 근대화는 최초의 근대국가의 성립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평등과 자유의 근대사상 도입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희생을 강요당해야 했다.»<sup>6)</sup> 급변하는 일본의 상황을 국민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그 급변하는 상황 속에는 정부의 강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변화, 문명의 변화로 인해 일본 사회가 혼돈의 상태가 될 것을 예상한 소세키는 메이지 시대에 발생한 고등유민이라는 사회현상을 소설의 주인공의 성격으로 설정하여 일본 사회를 비판했다.

메이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고등유민’이 있었던 일본은 청일전쟁(1894-1895), 러일전쟁(1904-1905)으로 인한 전후 불황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었고, 사회적·경제적으로 불안이 높아진 상태였다.<sup>7)</sup> 長島裕子は 소세키 작품에 등장하는 고등유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메이지 44년부터 45년에 걸쳐 사회문제였다.」 때문에 소세키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고등유민을 「소세키가 「발명했던 언어」 또는 「신조어」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sup>8)</sup> 이는 『그 후』의 고등유민이 소세키가 독창적으로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 그가 당시의 사회문제를 극대화시켜 작품에 형상화했다는 증거이다.

6) 김송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마음(こころ)』 연구-등장인물의 예고이즘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p.8

7) 伊豆利彦 해제-『소세키의 자기분위』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쓰메 소세키 나의 개인주의 외』 2004 p.195

8) 長島裕子 「『高等遊民』をめぐって-『彼岸過迄』の松本恒三 石原千秋 日本文學研究資料新集 14 夏目漱石-反轉するテキスト 有精堂 1986 p.218

소세키 작품의 대부분은 고등유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유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후』의 다이스케, 교양과 학덕을 쌓은 사람임에도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心』의 先生, 직업을 통한 사회활동을 거부하는 『彼岸過迄』의 敬太郎(게이타로) 등이 있다. 이렇게 고등유민의 성격을 가진 주인공들 중에서도 『그 후』의 다이스케는 지금까지 소세키가 썼던 작품들의 주인공보다 한 층 더 비판적이고 염세적인 고등유민으로 묘사되고 있다. 고등유민 다이스케는 실제 고등유민과는 달리 직업을 구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자발적인 취업포기자이고, 고상한 취미생활과 문명비판을 하며 지내는 인물로 묘사된다.

다이스케는 자신이 아버지의 경제적 원조를 받으며, 일을 구하지 않고 사는 고등유민 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직업이 없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는 다이스케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 나가이 도쿠(長井得)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한다.

「そう人間は自分だけを考えるべきではない。世の中もある。國家もある。少しは人の爲に何かしなくては心持のわるいものだ。御前だって、そう、ぶらぶらして心持の好い筈はなかりや。そりゃ、下等社會の無教育のものなら格別だが、最高の教育を受けたものが、決して遊んでいて面白い理由がない。」(三, p.38)

(“인간이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세상도 생각해야 하지. 그리고 국가도 있다. 조금이나마 남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할거야. 너도 그렇게 빈둥빈둥 놀고 있는 것이 기분 좋지만은 않겠지. 교육도 받지 못한 수준이 낮은 인간이라면 몰라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놀고 있어서야 결코 즐거울 리도 없고.”)

최해수는 소세키의 작품에 등장하는 고등유민을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자신의 존재를 합리화하는」<sup>9)</sup> 존재라고 해석했다. 다이스케도 자

9) 최해수 『韓日근대소설 작중 지식인의 유형 비교연구-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소설의 ‘高等遊民’과 염상범 소설의 ‘심폐사이저’의 비교-』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2003 p.12

신의 존재를 합리화한다. 그는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수긍하는 듯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고등유민 생활을 하는 자신을 ‘상등인종’이라 칭하며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그가 자신을 ‘상등인종’이라 칭한 이유는 직업에 더럽혀지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논리 중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얻는다는 것이 목적인 「모든 직업은 빵과 물을 떠나야 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는 빵과 물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 즉,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덕의심(德義心)보다 먹고 사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부패, 도덕적 타락 등에 관련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일의 목적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다이스케가 일을 구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사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게 된 것은 아버지의 물질적 원조 때문이다. 실업가로 성공한 아버지는 그를 먹여 살릴만한 재력이 있었고, 그가 일상생활에서 서양문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발달하고 곳곳에 서양문물의 유입이 시작되자 그 영향으로 상·중류층의 사람들은 홍차나 빵을 먹고, 신문이나 서양 서적을 접하게 된다. 그도 상·중류층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 신문물의 취미 위주로 고상한 생활을 하며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그의 모습은 자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경제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약점이 되어 그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

彼は今まで父に對して己れの四半分も打ち明けてはいなかった。その御蔭で父と平和の關係を漸く持續してきた。(十五, p.301)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사분의 일도 제대로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덕분에 간신히 아버지와 원만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다이스케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지 않은 채 원만한 관계를 지속한 이유는 자신의 고등유민 생활을 위해서였다. 그가 살고자 하

는 고등유민은 인간이 원하는 최적의 삶이기는 하나, 사람들 대부분이 고등유민처럼 사는 데에도 금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먹고 놀면서 살만한 자본도 없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이스케는 그 어려움을 물리칠 만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등유민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다이스케는 아버지가 제공한 고등유민 생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현실 감각이 떨어지게 된다. 그로 인해 다이스케는 현실이 반영된 이상보다 고등유민 삶에서 얻어낸 이상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다이스케의 모습을 친구 히라오카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僕は僕の意志を現實社會に働き掛けて、その現實社會が、僕の意志の爲に、幾分でも、僕の思い通りになったと云う確証を握らなくっちゃ、生きていられないね。そこに僕と云うものの存在の価値を認めるんだ。君はただ考えている。考えてるだけだから、頭の中の世界と、頭の外の世界を別々に建立して生きている。」(六, p.100)

(나는 나 자신의 의지를 사회에 실현시키려고 하고, 내 의지로 인해서 사회가 조금이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다는 확증을 가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바로 그런 점에 나라는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자네는 단지 생각만 하고 있어. 생각만 하다 보니 관념 속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따로따로 분리시킨 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자신이 누구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판단한다고 자부했던 다이스케는 「오랫동안 함께 사회에 대한 이상을 펼쳐 온 히라오카와 멀어지게 되면서, 다이스케의 이상은 현실성이 배제된 이론으로 변하게 된다.」<sup>10)</sup> 그는 자신이 직업을 구하지 않는 이유나 결혼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성은 배제시킨 논리만을 고집하며, 「결혼이나 직업과 같은 사회제도와 의무에 관련된 일보다는 세상으로부터 한발 떨어져 바라보면서 사색」<sup>11)</sup>하고 있었다. 자기만의 세계에

10) 이숙향 『夏目漱石의 『それから』 고찰 -인간 내부의 '자연'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p.11

서 사색한 결과, 다이스케에게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상이 발생하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어떤 사회에 가도 존재하지 않는 「빵과 물을 떠난 직업」을 원한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은 일로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지, 단지 경험이나 보람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빵과 물을 떠난 직업」은 있을 수 없다. 둘째, 자신의 결혼은 정략결혼이 아닌, 자유연애로 하기를 원한다. 메이지 시대에서 연애결혼은 확률적으로 이루기 힘든 점이 많아서<sup>12)</sup> 정략결혼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그는 자유결혼을 고집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스케는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을 가하는 것도, 당하는 것도 싫어하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속은 비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좋은 말은 하는 모순된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이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버지를 경멸하면서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이 다이스케의 이상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이 자신의 세계에 깊이 빠져서 개인적인 바람을 이상에 이입시키고 있었고 이는 현실과 모순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이스케의 성격의 기본이 된 환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훈육방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가족 구성은 아버지, 형과 형수, 조카 둘과 다이스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는 본가에서 살지 않고 따로 나가 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분가하기 전까지는 본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가 그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교육은 현재 살고 있는 메이지 시대의 교육과는 다른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구시대의 교육이었는데, 예를 들면 메이지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담력훈련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담력 훈련을 위해 그를 어두운 밤에 공동묘지에 다녀오라고 한다던가, 자신의 전쟁 참가 경력을 언급하며 그에게 「너 같은 녀석은 배짱이 없다」라고 하는 등 현재 시대에서 불필요한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아버지가 이러한 교육을 시킨 이유는 자신의 청년 시절과 다이스케의 청년 시절이 다르지 않다

11) 차민경 『나쓰메 소세키의 『그 후』 연구-참살·회복·정략결혼-』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1 p.47

12) <http://hennkutubunnkazinn.blog.fc2.com/category8-1.html> 高田知波 『夏目漱石「それから」もう一度讀む名作 テキスト論からバイアスの解放』 その七 1998 (참조)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이스케는 반대로 아버지의 교육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힘들어 했다. 그렇게 30년 동안 다이스케는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그에게 걸으려는 크게 불평이나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고,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최선으로 하면서 지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이스케가 아버지의 교육방식에 불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자신이 늦쇠라는 것을 깨닫기 전의 그는 아버지와 선배들을 동경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 자신이 열성을 다했던 것들에 부질없음을 느낀 후로는 아버지의 교육방식을 따르지 않게 된 것이다. 과거의 다이스케는 아버지의 교육으로 남을 위로해주기를 좋아해서, 히라오카에게도 많은 위로를 해주며 지냈다. 그러나 미치요를 히라오카에게 양보한 이후로 지금까지 실천해왔던 아버지의 교육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다이스케는 아버지와 선배를 따라 걷고자 했던 것이 자신에게 쓸모없는 일이라고 느낀 뒤부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알게 되고, 이것의 영향으로 사회에 대한 실망과 혐오가 나타난다. 또한 일본사회에 대해서 부정적, 염세적으로 보는 태도와 닐 아드미라리(nil admirari)<sup>13)</sup>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후 3년 간 다이스케는 범인(凡人)들처럼 사회에 맞서 싸우며 뛰어들기 보다는 자신의 이상을 고집하고 사회에 대한 비판 또는 무관심으로 일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을 찾지 않고 결혼에도 독신주의자와 같은 성향을 띄게 된다.

지금까지 다이스케의 성격을 살펴본 결과 그는 궁극적으로 사회에 관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고등유민의 삶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직업을 구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태도는 가족에게 큰 짐을 안겨주게 된다. 더욱이 30년 동안 경제적 원조를 받은 것도 모자라 평생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 살고자 한다면 가족에게 있어 유쾌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다이스케에게는 자신의 나이에 맞게 주어진 일이 있음에도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회피하는 모습은 직업 선택이나, 결혼을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결국, 자신을 예민한 성격으로 논리적이며, 이성적이고 냉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따져보면 그의 성격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피하고 자기합리화 하기 위해 만든 것임

---

13) 닐 아드미라리(nil admirari)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태연자약한 태도.

을 알 수 있다.

## 2. 代助의 結婚問題

### 1) 代助의 結婚觀과 政略結婚의 인과관계

#### ① 理想主義者로서의 代助의 結婚觀

서른 살의 청년 다이스케는 혼기가 찬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무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형수가 소개해준 부인 후보자들을 사진으로 보고 많이 만났지만, 결혼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 않는 않았다. 다이스케의 결혼에 대한 무관심은 그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만들었던 인연인 미치요를 결혼시킨 후부터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원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보살펴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전부터 미치요를 누이동생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미치요와의 만남을 주선 해주라는 히라오카의 부탁을 받아들여 미치요와의 주선과 결혼까지 성사시킨다. 그러나 다이스케의 우정으로 인해 미치요와의 결혼을 하게 된 히라오카는 득의만만한 미소를 띠며 미치요와 함께 도쿄를 떠난다. 히라오카의 득의만만한 미소를 본 이후의 다이스케는 그에게 미움, 배신감, 후회를 느끼고 모든 일에 태연자약하고 무신경해지는 널 아드미라리(nil admirari)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숙향은 이런 다이스케에 대해 「그는 최근 ‘이삼 년’ 사이 모든 일에 무관심해진 탓에, 결혼 역시 중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sup>14)</sup> 고 논하고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모든 일에 무관심해진 그의 결혼에 대한 의식이다.

生涯一人でいるか、或は妾を置いて暮すか、或は芸者と關係をつけるか、代助自身にも明瞭な計畫はまるでなかった。ただ、今の彼は結婚といるものに對して、他の獨身者の様にあまり興味を持てなかった事は慥かである。これは、彼の性情が、一図に物に向って集注し得ないのと、彼の頭が普通以上に鋭ど

14) 이숙향 『夏目漱石의 『それから』 고찰 -인간 내부의 ‘자연’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pp.15-16

くって、しかもその鋭さが、日本現代の社會狀況のために、幻像打破の方面に向って、今日まで多く費やされたのと、それから最後には、比較的金錢に不自由がないので、ある種類の女を大分多く知っているのとの三カ條に、歸着するのである。(七, pp.123-124)

(평생 혼자서 살 것인가, 첩을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기생과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다이스케 자신도 아무런 뚜렷한 계획이 없었다. 다만 현재의 그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독신자처럼 그다지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것은 그의 본성이 어느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의 머리가 보통이상으로 예민하고 더욱이 그 예민함을 일본 현대사회 상황 때문에 환영타파에 많이 소모했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여러 부류의 여자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세 가지 점에서 결론지을 수 있었다.)

다이스케의 결혼관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은 결혼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뚜렷한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그가 결혼에 대해 「평생 혼자서 살 것인지, 첩을 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 기생과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지, 다이스케 자신도 아무런 뚜렷한 계획이 없었다」고 하며, 현재의 자신의 상태는 독신주의자와 같다고 정리한다. 그리고 그가 언급한 세 가지 예를 살펴보면 결혼을 하지 않고 여자와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高田知波는 이 예시를 이렇게 해석했다. 「혼자서 사는 것은 말 그대로의 의미일 것이고, 첩을 두고 산다는 것은 결혼하고 첩을 둔다는 것이 아니라, 첩만 두고 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sup>15)</sup> 첩을 들인다는 의미는 그가 원하는 독신으로 살면서도 육체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의 기생과 관계를 맺으며 산다는 것은 「기둥서방이 된다는 것」<sup>16)</sup>으로서, 기둥서방은 기생이나 창기의 영업을 도와주면서 얻어먹고 사는 사내를 일컫는다. 이 같은 논리로 살펴보았을 때 다

15) <http://hennkutubunnkazinn.blog.fc2.com/category8-1.html> 高田知波 夏目漱石 「それから」もう一度讀む名作 テキスト論からバイアスの解放 その七 1998

16) 위의 웹페이지.

이스케가 제시한 예는 현재의 자신이 독신주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박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는 이상적인 삶, 고등유민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은 그를 속박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남들처럼 결혼을 떠밀려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다이스케는 결혼에 흥미가 없을 뿐더러 자신의 미래가 강요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을 필수 조건으로 단정 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심초사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며, 또한 너무 세속적이라고 내심 생각했다.

이 시대의 30살은 결혼적령기를 넘어서는 나이이며,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않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사자가 동성애자이거나, 결혼하지 못할 정도로 큰 병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sup>17)</sup> 다이스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직 큰 병이라고는 앓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에 있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런 그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는 자신의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결혼은 중요치 않았다.

代助は、感受性の尤も發展した、又接点の尤も自由な、都會人士の代表者として、芸者を選んだ。彼等のあるものは、生涯に情夫を何人取り替えるか分からないではないか。普通の都會人は、より少なき程度に於て、みんな芸者出はないか。代助は渝らざる愛を、今の世に口にするものを偽善家の第一位に置いた。(十一, p.201)

(다이스케는 감수성이 가장 발달했고, 가장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도시인의 대표자로 게이샤를 선택했다. 그들이 평생 정부(情夫)를 몇 명 바꾸는지 알 수 없지 않은가. 일반적인 도시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게이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이스케는 요즘 같은 세상에 변함없는 사랑을 입에 담은 사람을 제일가는 위선자로 간주했다.)

---

17) 위의 웹페이지. その五 (참조)

메이지 시대의 남녀는 자유연애를 하기가 어려웠다. 자유연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친구의 형제나, 하숙집 주인의 딸, 사촌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 상대마저 없다면 요즘과 같은 연애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sup>18)</sup> 그리고 남녀의 연애결혼이 성립 되려면 「당시의 남자와 여자의 차이 즉, 지식의 차이를 줄여야 가능하다」고 송혜경이 당시의 연애결혼에 대해 평가했다.<sup>19)</sup> 많은 사람들은 정략결혼을 많이 선택했는데, 이유는 시간과 돈을 들여 여자의 지식을 넓히는 것보다 가족의 명령에 의한 정략결혼이 보다 손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혼을 실패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의 결혼관에 대해 차민경은 「한 순간의 정욕에 의한 결혼, 부모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결혼을 하는 것에 따라 결혼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혼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점에서 메이지 시대의 결혼관과 이혼관이 에도시대와는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sup>20)</sup>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략결혼이 두 사람의 마음보다 조건을 우선으로 하는 부모님에 의해 이루어진 결혼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다이스케에게 도시인들 모두 게이샤와 같은 삶을 산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그리고 게이샤처럼 사는 도시인에게는 ‘변함없는 사랑’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은 그들에게 불행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결혼관에 대해 신현철은 「변함없는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이 세상 최고의 위선자라고 생각하던 그의 都會人藝妓說은 미치요와 결혼 할 수 없는 현실을 자기합리화하기 위한 연애철학이었을 뿐 진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sup>21)</sup>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논자는 다이스케의 게이샤설이 만남과 이별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도시인의 결혼관에 대한 비판을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감춰진 ‘변함없는 사랑’을 갈망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다이스케는 변하는 사랑을 하도록 만드는 정략결혼에 대해서 선불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연애결혼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이것은 변하는 사랑을 하는 도시인과는 다른,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

18) 위의 웹페이지 その十五 (참조)

19) 송혜경 『연애와 문명』 문 2010 p.98

20) 차민경 『나쓰메 소세키의 『그 후』 연구-참살·할복·정략결혼-』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1

p.45

21) 신현철 『漱石文學에 있어서 戀愛와 女性の 問題 -それから를 中心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p.54

로 생각된다. 그가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

昔し三千代の兄がまだ生きていた時分、ある日何かのはずみに、長い百合を買って、代助が谷中の家を訪ねた事があった。その時彼は三千代に怪しげな花瓶の掃除をさして、自分で、大事そうに買って来た花を活けて、三千代にも、三千代の兄にも、床へ向直って眺めさせた事があった。(十, p.171)

(예전에 미치요의 오빠가 아직 살아 있을 때,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이스케가 긴 백합을 사들고 야나카에 있는 그들 오누이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미치요에게 어설픈 꽃병을 씻어오라고 해서, 사온 꽃을 직접 정성스럽게 꽃고는 미치요와 그녀의 오빠에게 바라보게 한 적이 있었다. 미치요는 그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貴方は派手な半襟を掛けて、銀杏返しに結っていましたね」

「だって、東京へ來立だったんですもの。じき已めてしまったわ」

「この間百合の花を持って來て下ろさった時も、銀杏返しじゃなかったですか」

「あら、氣が付いて。あれは、あの時ぎりなのよ」

「あの時はあんな鬘に結いたくなかったですか」

「ええ、氣迷れに一寸結ってみたかったの」

「僕はあの鬘を見て、昔を思い出した」

「そう」(十四, p.276)

“당신은 화려한 장식용 깃을 달고, 은행잎 모양의 머리를 하고 있었지요.”

“그건 도쿄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으니까요.”

“일전에 백합을 가져왔을 때도 같은 머리 모양이지 않았나요?”

“어머, 알고 계셨군요. 그 머리를 한 건 그때뿐이었어요.”

“그때는 그런 머리가 하고 싶었던 건가요?”

“네, 일시적인 기분에서 한 번 해본 거예요.”

“그 머리 모양을 보니 옛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다이스케는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상대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자신의 상대가 있었음을 깨닫는다. 미치요는 다이스케와의 과거를 잊지 않고 간접적으로 백합이나 은행잎 머리로 과거를 떠올리게 만들어서 그가 자신을 선택해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것은 미치요가 과거를 잊지 못할 만큼 다이스케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와 연결되는 주장으로는 高田知波가 「다이스케는 과거에 미치요를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은 다이스케가 미치요의 사랑에서 확신할 만한 단서가 없어서」<sup>22)</sup>라고 논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그녀의 사랑을 확신할 만한 결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녀를 선택했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바로 위에서 인용한 장면인 것이다.

미치요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기 전의 다이스케는 유부녀가 된 그녀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가 미치요를 선택한다면 자신의 삶에서 누리던 것들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항상 최대한으로 고상한 생활욕과 도의심을 만족시키길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부녀와 관계했다는 점에서 이미 도의심은 상실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고상한 생활욕 또한 만족시킬 수가 없었지만 히라오카 부부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서 자신과 그녀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미치요는 다이스케의 절친한 친구 스가누마(菅沼)가 아끼던 하나 뿐인 여동생이었고, 생전에 스가누마가 여동생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그럴만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다이스케는 미치요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 3년 전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의 형수 우메코가 생각 없이 내뱉은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쪽으로 시집갔으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 미치요를 선택해 과거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음을 굳힌다.

---

22) <http://hennkutubunnkazinn.blog.fc2.com/blog-category-8.html> 高田知波 『夏目漱石「それから」もう一度読む名作 テキスト論からバイアスの解放』 その十二 1998



다이스케가 미치요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가 중요시 여기던 삶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 했다. 그러나 다이스케의 마음에서 느껴진 책임감과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확신은 미치요가 보여준 변함없는 애정, 사랑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

## ② 政略結婚의 희생양으로서의 代助

나가이가의 막내이자 차남인 다이스케는 집안에서 존재감이 미약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 이유는 1898년에 시행된 구민법 970조에서 알 수 있는데 「가독(家督)상속에 대해 남자, 적출자(嫡出者), 연장자(年長者) 우선(優先)을 규정(規定)하고」<sup>23)</sup>있기 때문에 차남인 그에게는 상속의 우선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작품 속에서 다이스케가 아버지, 형, 조카의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문자(誠)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예제도(家制度)’의 의무 중 하나인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다이스케가 독립하기 전까지 물질적인 도움은 계속 했다. 때문에 적잖이 경제적 부담을 가진 아버지와 가족들은 그가 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몇 년 동안 결혼문제를 언급하면서 그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하길 원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다이스케에 대해서 경제적 원조를 해 준 까닭은 가장의 의무이기도 했지만 그로 하여금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최고의 교육을 받고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매달 생활비를 받으며 사는 모습에 한심함을 느낀 아버지는 마침 과거의 인연으로 만나게 된 재산가의 딸과 정략결혼을 시켜 본격적으로 그 부양의 의무를 떠넘기려는 계획을 세운다.

아버지와 더불어 형 세이고(誠吾)와 형수 우메코(梅子)는 다이스케가 가족에게 정략결혼으로 체면을 세워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세이고는 다이스케가 기생집을 드나들며 처리하지 못한 돈을 갚아주고, 우메코는 다이스케가 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부인 후보자들을 골라서 보여주고 소개도 시켜주었다. 그러다 우연히 다이스케에게 시아버지와 사가와 아가씨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들은 뒤부터 우메코는 시아버지가 그와 사가와 아가씨와의 정략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시아버지보다 한 발 앞서 다이스케와 사가와 아가씨는 인연이라고 강조하며 그녀와 정략결혼을 했으면 하는 의도를 보인다.

23) 조영석 『나쓰메 소세키의 문학세계』 보고사 2001 p.97

「大変込み入ってるのね。私驚いちゃった」と嫂が代助に云った。  
「御父さんから何返も聞いてるじゃあるませんか」  
「だって、何時もは御嫁の話が出ないから好い加減に聞いてるのよ」  
「佐川にそんな娘があったのかな。僕も些つとも知らなかった」  
「御貰いなさいよ」  
「賛成なんですか」  
「賛成ですとも。因縁つきじゃありませんか」(三 p.53)

“정말 복잡한 사연이네요. 그런 줄은 몰랐어요.” 라고 형수가 다이스케에게 말했다.

“아버지로부터 몇 번씩 듣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전에는 결혼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지 않았지요.”

“사가와 일가에 그런 딸이 있었을 줄은 나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아가씨와 결혼하세요.”

“찬성하시는 겁니까?”

“찬성하고 말고요. 그런 인연이 어디 있겠어요?”

다이스케와 우메코는 취미생활도 비슷해서 함께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본가에 가면 만나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가족 중에 가장 대화가 잘 통하는 사이였다. 그러나 다이스케의 결혼문제에서의 우메코는 자신이 나서서 강요와 압박을 주고 있었다. 우메코는 꾸준히 다이스케에게 정략결혼을 권유하려 했지만 그녀가 결혼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다이스케는 슬쩍 장소를 빠져나간 다거나 말을 돌려서 대화의 흐름을 깨버리는 식으로 설득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이스케가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다이스케를 설득하는 것은 포기하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만남을 주선한다.

代助は女の名を聞いたとき、旨く掛けられたと腹の中で思った。が何事も知らぬものの如く装って、好加減に話していた。すると嫂が一寸自分の方を振り

向いた。… (中略) … 代助はこの先、嫂がこの事件をどう發展させる氣だろうと考えて、少々弱った。家のものの中で、嫂が一番こんな計畫に興味をもっていたからである。もし嫂がこの方面に向って代助に肉薄すればする程、代助は漸々家族のものと疎遠にならなければならぬと云う恐れが、代助の頭の何處かに潜んでいた。(十一, p.197)

(다이스케는 여자의 이름을 들었을 때, 숨씨 좋게 걸려들어서 기분이 언짢아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모습으로, 적당히 말하고 있었다. 그러자 형수가 잠깐 자신 쪽을 돌아보았다. … (중략) … 다이스케는 앞으로, 우메코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신경이 쓰였고, 조금 난처해졌다. 가족 중에서 형수가 가장 이와 같이 계획적이고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형수가 이 방면으로 다이스케에게 알뜰하게 굴면 출수록, 다이스케는 점점 가족과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공포가, 다이스케의 머릿속 어딘가에 숨어있었다.)

다이스케는 가부키 공연장에서 사가와 아가씨를 만났을 때 이것이 우메코의 계획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당사자가 당장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도 억지로 엮어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우메코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자신과 친분이 두터웠던 우메코라도 자신이 사가와 아가씨와 결혼하기를 계속 강요한다면 우메코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우메코의 돌발 행동으로 미래가 두려워진 다이스케는 어지러워진 마음을 달래고, 자신의 결혼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행을 계획한다. 하지만 자꾸 마음에 걸리는 미치요 때문에 계획했던 여행은 떠나지 못하고, 대신 우메코에게 그 동안 미치요에게서 느꼈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러 간다. 그리고 그 곳에서 우메코가 다이스케의 결혼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한 바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だからね。どうせ誰を持って行っても氣に入らない貴方なんだから、つまり誰を持たしたって同じだろうって云う譯なんです。貴方にはどんな人を見せても駄目なんですよ。世の中に一人も氣に入る様なものは生きてやしません

よ。だから、奥さんと云うものは、始めから氣に入らないものと、諦めて貰うより外に仕方がないじゃありませんか。(十四, p.262)

“그러니까 어짜피 누구를 데려와도 맘에 들지 않을 도련님이니까, 누구를 데려와도 똑같은 것이라는 의미지요. 도련님에게는 어떤 사람을 보여도 결혼하기 힘들어요. 세상에 한 사람도 맘에 들 것 같은 사람은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부인이라고 하려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체념하고 결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위의 인용문에서 우메코가 결혼문제의 당사자인 다이스케의 의견은 무시한 채 정략결혼을 강요해야만 했던 이유가 나온다. 우메코는 그가 마냥 연애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최대한 빨리 성립 가능한 정략결혼을 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이스케의 결혼을 재촉하는 그녀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형수로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남편의 일자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우메코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맡고 있는 사업이 미래에는 자신의 남편이 맡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마음이 조급해져서 회사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아버지의 계획에 동참하여 다이스케에게 정략결혼을 강요한 것이다.」<sup>24)</sup>

이렇게 우메코가 다이스케에게 결혼의 압박을 주는 동시에 아버지도 다이스케에게 사가와 아가씨와의 정략결혼을 위한 회유를 시도한다. 그러나 다이스케는 당장 결혼에 대한 계획도 없고,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략결혼을 권유하는 목적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自分の命の親に当る人の血統を受けたものと縁組をするのは結構な事であるから、貰ってくれと云うのである。そうすれば幾分か恩が返せると云うのである。要するに代助から見ると、何が結構なのか、何が恩返しに当るのか、まるで筋の立たない主張であった。(七, p.122)

---

24) 오경 『가족관계로 읽는 『그 후(それから)』』 덕성여자대학교 2006 p.106 (참조)

(아버지의 은인의 혈통을 받은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 결혼 하라는 것이다. 결혼을 하면 조금은 자신의 은인에게 은혜를 갚게 된다는 것이다. 다이스케가 봤을 때 이 주장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은혜를 갚는 것으로 당연한 것인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었다.)

아버지가 말하는 다이스케가 정략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에는 그를 위한 것보다 아버지를 위한 목적만이 드러나 있다. 다이스케는 자신의 은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구실일 뿐이고, 정략결혼을 요구하는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정략결혼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동맹을 맺거나 전쟁 회피·침략추진·상대 주군의 계승권을 얻기 위해 또는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sup>25)</sup> 이 중에서 실업가인 아버지가 정략결혼의 목적으로 생각할 만한 것은 동맹을 맺거나,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일 확률이 높다.

당시의 결혼은 당사자의 의사보다 가족들이 권유하는 대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다이스케에게 결혼시키는 의도만 언급하더라도 알아서 다이스케가 정략결혼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말하는 「사가와 아가씨와 결혼하면 자신의 은인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다」라는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아버지가 의도를 설명했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또한 아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위, 위선이 싫어서 스스로 변하고 있는 그가 쉽사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했을 리 만무하다. 다이스케의 결혼관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는 ‘변함없는 사랑’을 중요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으면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성격이다. 다이스케는 자신이 사가와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물질적 보상은 될지 모르겠지만, ‘변함없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는 계속해서 다이스케에게 사가와 아가씨와의 정략결혼을 권유한다.

代助は次に、獨立の出来るだけの財産が欲しくはないかと聞かれた。代助は

---

25) 차민경 『나쓰메 소세키의 『그 후』 연구-참살·할복·정략결혼-』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1 p.39

無論欲しいと答えた。すると、父が、では佐川の娘を貰ったら好かろうと云う条件を付けた。その財産は佐川の娘が持って来るのか、又は父がくれるのか甚だ曖昧であった。代助は少しその点に向かって進んでみたが、遂に要領を得なかった。けれども、それを突き留める必要がないと考えて已めた。次に、一層洋行する気はないかと云われた。代助は好いでしょうと云って賛成した。けれども、これにも、やっぱり結婚が先決問題として出て来た。

「そんなに佐川の娘を貰う必要があるんですか」と代助が仕舞に聞いた。(九, p.151-152)

(ダイスケは 다음으로 독립할 수 있을 만한 재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다이スケ는 물론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렇다면 사가와와 아가씨와 결혼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그 재산은 사가와와 아가씨가 가져오는 것인지, 혹은 아버지가 주는 것인지 매우 애매했다. 다이スケ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따져 물었지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구태여 따질 필요도 없다는 생각에 그만두었다. 그런 다음, 차라리 서양에 갈 생각은 없느냐는 말을 들었다. 다이スケ는 그것도 좋겠다고 하며 찬성했다. 하지만 역시 또 결혼이 선결 문제로 나왔다.

“그렇게까지 사가와와 아가씨와 결혼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라고 다이スケ는 마침내 물었다.)

이 시기의 다이スケ는 당장 누군가와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굳이 결혼한다면 상대는 미치요였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을 현실에 반영하여 미치요를 선택한다면 가족들의 성에 차지 않는 여자를 골랐다는 이유로 고등유민 생활은 끝날 것이 뻔했다. 그래서 이 생활을 포기해도 좋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조심히 행동하며 자신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아버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지금까지 결혼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애매한 대답과 결혼 문제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번만큼은 끈질기게 특정한 아가씨와의 결혼을 요구하자 아버지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사가와와 아가씨와 결혼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라고 그

에게 질문을 던진다. 아버지가 다이스케에게 정략결혼을 권유한 이유는 당시의 ‘이에 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것은 아버지가 「가부장제 가족단위에 있어서의 모든 대소사항의 결정권과 경제권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sup>26)</sup> 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을 중시하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먼저 내세운 것이다. 그가 정략결혼을 권유한 또 다른 이유로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다이스케의 결혼상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권한 사가와 아가씨는 자신의 인연의 혈통이기도 하고, 집안을 일으켜 줄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가진 집안의 아가씨라서 그런 여자와 다이스케가 결혼을 한다면 가족의 명예가 올라가고 동시에 지금까지 경제적 원조를 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현철은 전통적 가족사회에서의 결혼문제를 「당사자의 의견은 거의 무시된 채, 부모들이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결정되곤 했다. 다이스케의 아버지도 이같은 생각에서 자식의 의견은 무시한채 의례히 따를것으로 여기며 며느리 후보자를 정해놓고 다이스케에게 결혼할것을 강요한다」<sup>27)</sup>고 논했다. 아버지는 다이스케의 결혼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사가와 아가씨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며 가족을 위해 그가 희생해주길 바라는 태도를 보인다. 우메코도 마찬가지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가 하루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다이스케는 과거를 계기로 형성된 미치요와의 관계를 끊을 생각도 없었을 뿐더러, ‘변함없는 사랑’이 없는 결혼 즉, 정략결혼이 하기 싫었다. 이렇게 가족들은 결혼문제에서 다이스케를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본인의 목적을 중심으로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그는 확실한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26) 용석인 『明治青年의 結婚觀-『夏目漱石』의 作品을 中心으로-』 관동대학교 1993 p.308

27) 신현철 『漱石文學에 있어서 戀愛와 女性의 問題 -それから를 中心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p.51



## 2) 代助의 自然으로의 回歸

다이스케와 미치요의 관계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이스케가 미치요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스가누마(菅沼)와의 친분으로 알게 되었는데, 미치요는 스가누마의 여동생으로 스가누마는 그녀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 그녀에 대한 스가누마의 사랑은 그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커서 자기 곁에 두려고 고향에서 데려올 정도였다.

國から連れて来て、一所に家を持ったのも、妹を教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云う義務の念からではなくて、全く妹の未來に對する情合と、現在自分の傍に引き着けて置きたい欲望とからであった。彼は三千代を呼ぶ前、既に代助に向つてその旨を打ち明けた事があつた。その時代助は普通の青年の様に、多大の好奇心を以てこの計畫を迎えた。(十四, p.277)

(고향에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살고 있는 것도 여동생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의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동생의 미래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현재 자신의 옆에 두고 싶었던 욕망에서였다. 그는 미치요를 부르기 전에, 이미 다이스케에게 그 뜻을 털어놓았던 것이다. 그때 다이스케는 평범한 청년처럼 많은 호기심으로 이 계획을 받아들였다.)

스가누마는 미치요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했고, 그 배우자는 다이스케가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두 사람이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고향에서부터 미치요를 데리고 온 것이다. 일찍이 그는 다이스케에게 여동생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말했고, 다이스케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스가누마는 미치요를 실업가의 아들인 다이스케와 어울리는 여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취미교육을 다이스케에게 받으라고 하거나, 자주 미치요를 불러 그와 얼굴을 익히게 하고, 친구간의 대화에도 비밀이 없이 미치요와 함께 나누었다. 그러나 스가누마가 장티푸스로 죽게 되

면서 두 사람을 이어주려던 계획이 무산되고 만다. 그 이유는 스가누마가 죽게 되면서 어떤 이의 계획 없이 두 사람이 스스로 관계를 이어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이스케는 스가누마가 죽은 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兄が死んだ後で、当時を振り返ってみる毎に、代助はこの親密の裡に一種の意味を認めない譯に行かなかった。兄は死ぬ時までそれを明言しなかった。代助も敢えて何事をも語らなかった。相互の思わくは、相互の間の秘密として葬られてしまった。兄は存生中にこの意味を私に三千代に洩れらした事があるかどうか、其所は代助も知らなかった。代助はただ三千代の舉止動作と言語談話からある特別な感じを得ただけであった。(十四, pp.277-278)

(스가누마가 죽은 후에 그 당시를 돌이켜 볼 때마다 다이스케는 그 친밀함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다이스케도 구태여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서로의 생각은 둘 사이의 비밀로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가 생전에 그 의미를 은밀히 미치요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이스케도 알 수가 없었다. 다이스케는 단지 미치요의 행동과 말에서 어떤 특별한 느낌을 받았을 뿐이었다.)

다이스케는 남매에게서 특별한 느낌만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다이스케와 미치요의 관계는 이 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남매의 행동에서는 이미 다이스케를 허락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현자도 논자와 마찬가지로 「미치요의 오빠인 스가누마가 다이스케를 미치요의 장래의 배우자로 생각했고, 미치요도 그것을 암묵적으로 긍정하고 있었다」<sup>28)</sup>고 하여 과거의 남매는 다이스케와의 관계를 허락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행동은 훗날 두 사람의 관계를 전보다 더 깊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다이스케는 히라오카의 부탁을 받고 미치요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까지

---

28) 박현자 『夏目漱石의 『それから』에 관한 研究 『それから』의 基本時點을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p.18

성사시켰는데 이것은 그가 미치요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미치요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히라오카의 부탁을 흔쾌히 허락한 것이다. 이 주선에 대해 이숙향은 「다이스케는 자기 내부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온 진실로부터 의식적으로 눈을 돌린다. 그리고 미치요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만을 인식하여, 미치요를 히라오카와 맺어준다。」<sup>29)</sup>고 말하고, 高田知波는 「명예를 위해 두 사람을 주선했다」<sup>30)</sup>고 논하고 있다. 논자는 이숙향의 주장보다 高田知波의 쪽이 논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다. 다이스케는 미치요를 중시하기보다 그녀를 주선하여 돌아오는 히라오카의 감사의 마음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 후 히라오카의 진심을 알고 미움,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다이스케는 1년 후 결혼한 히라오카와 미치요를 떠나보낼 때 보았던 히라오카의 득의만만한 표정을 본 이후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를 느끼게 된다. 결혼 후 히라오카는 다이스케에게 자신이 경험한 일들, 꿈, 목표 등을 편지로 보내서 안부를 전했다지만 다이스케는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불안을 느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히라오카가 실업자가 되어 도쿄로 돌아옴으로써 현실화 된다.

「少し御金の工面が出来なくて？」三千代の言葉はまるで子供の様に無邪氣であるけれども、兩方の頬はやっぱり赤くなっている。代助は、この女にこんな氣恥ずかしい思いをさせる、平岡の今の境遇を、甚だ氣の毒に思った。(四, p.67)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미치요의 말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했지만 양쪽 뺨은 역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다이스케는 이 여인에게 이런 창피한 계획을 시킨 히라오카의 현재의 처지가 몹시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29) 이숙향 『夏目漱石의 『それから』 고찰-인간 내부의 '자연'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p.22

30) <http://hennkutubunnkazinn.blog.fc2.com/blog-category-8.html> 高田知波 『夏目漱石「それから」もう一度読む名作 テキスト論からバイアスの解放』 その十二 1998 (참조)

급하게 자신에게 돈을 빌리러 온 미치요를 통해 다이스케는 히라오카가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함을 알게 되고, 본인은 돈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선뜻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임을 절감하게 된다. 다이스케가 이따금씩 그녀의 외로움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달래주기 위해 부부의 집을 찾아가곤 할 때에도 히라오카의 문제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다. 다이스케는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신뢰와 애정이 바탕이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고 생각했다. 「메이지 시대에 여자는 개인 재산을 갖기가 불가능해서 현재의 여자들처럼 자립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에서 남편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웠다.」<sup>31)</sup> 그래서 당시의 이상적인 부부상은, 부인은 내, 남편은 외를 맡고 있다. 즉, 「부인은 가정의 내적인 부분, 전형적인 현모양처로서 일부(一夫)를 섬기면서 집안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살림을 맡고, 남편은 가정의 외적인 부분, 집의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경제력을 받쳐주는 것이다.」<sup>32)</sup> 그러나 히라오카 부부는 상대에게 의지하는 모습이나 애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런 모습은 다이스케에게 부부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다이스케는 히라오카 부부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된 원인을 미치요의 심장병으로 시작된 연속적인 사건들 때문이라고 보았다. ‘심장병으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를 이어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미치요’와 ‘이러한 여자에게서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히라오카’가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다이스케는 이들의 사이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자신과 미치요는 관계를 뗄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불평 한 마디 하지 않는 미치요를 보면서 다이스케는 문득 자신의 신붓감으로 미치요를 떠올리기 시작한다.

彼はこの取り留めのない花やかな色調の反照として、三千代の事を思い出さざるを得なかった。そうして其所にわが安住の地を見出した様な気がした。けれどもその安住の地は、明らかには、彼の眼に映じて出なかった。ただ、かれ

31) 송혜경 『연애와 문명』 문 2010 pp. 64-65 (참조)

32) 오경 『가족관계로 읽는 『그 후(それから)』』 덕성여자대학교 2006 p.106 (참조)

の心の調子全体で、それを認めただけであった。(十一, p.198)

(그는 그런 종잡을 수 없는 화려한 색조의 반사로서 미치요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안식처를 발견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 안식처는 그의 눈에 확실히 비치지는 않았다. 단지 그것은 마음속에 막연한 느낌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아니었다. 이 보다 다이스케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미치요의 ‘변함없는 사랑’이었다.

黙って、次の間へ立って行った。用筆筒の環を響かして、赤い天鵞絨で張った小さい箱を持って出て来た。代助の前へ坐って、それを開けた。中には昔し代助の遣った指輪がちゃんと入っていた。(十三, p.232)

(미치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방으로 갔다. 장롱 고리 소리가 나더니 빨간 비로드로 덮어씌운 작은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다이스케 앞에 앉더니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예전에 다이스케가 준 반지가 분명히 들어 있었다.)

미치요는 다이스케가 준 금전을 진주 반지로 교환했다는 것을 증명 하려는 듯이 그에게 반지를 보여준다. 그녀는 왜 되찾아 온 진주 반지를 굳이 다이스케에게 보여 주었을까. 박명수는 이에 대해 「미치요는 다이스케에 대한 사랑을 반지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sup>33)</sup>라고 논했다. 논자도 박명수와 같이 미치요는 반지를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자신이 받은 금전을 진주 반지로 바꿔올 정도로 그녀는 다이스케가 선물로 주었던 반지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진주 반지와 함께 그녀가 보인 백합, 은행잎 머리도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윤은경은 다이스케가 미치요를 선택한 것에 대해 「자신의 논리의 균열을 뚫고 「요즘 같은 세상」에 「제일가는 위선」으로 간주해 온 「변치 않는 사

33) 박명수 『『それから』考 -사랑과 상징적 수법-』 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문화학보 1996 p.295

랑」을 눈앞에서 재현해 보이고 있는 미치요라는 존재를 실감」은 했지만, 이것이 현재의 두 사람이 이룬 사랑이 아니라 미치요의 과거의 사랑에 대한 다이스케의 뒤늦은 대답이라고 해석<sup>34)</sup>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미치요의 적극적인 과거의 회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관계를 이어나갈 구실이 중간에 사라져 버렸지만, 현재의 두 사람에게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어진 미치요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이스케는 자신이 「자연의 아이」가 될 것인지, 「의지의 인간」이 될 것인지 갈등을 해야만 했다.

彼は三千代と自分の關係を、天意によって、一彼はそれを天意としか考え得られなかった。一醗酵させる事の社會的危險を承知していた。天意には叶うが、人の掟に背く戀は、その戀の主の死によって、始めて社會から認められるのが常であった。彼は万一の悲劇を二人の間に描いて、覺えず慄然とした。彼は又反對に、三千代と永遠の隔離を想像してみた。その時は天意に従う代りに、自己の意志に殉ずる人にならなければ濟まなかった。彼はその手段として、父や嫂から勤められていた結婚に思い至った。そうして、この結婚を肯うことが、凡ての關係を新たにするものと考えた。(十三, p.251)

(그는 미치요와의 관계를 하늘의 뜻에 따라서—그는 그것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발전시켰을 때에 뒤따를 사회적 비난의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늘의 뜻은 다르지만 인간의 법도를 어기는 사랑이란 보통 그 사랑의 주체가 죽어야만 비로소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그는 만일의 경우에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비극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섬뜩해졌다. 그는 또 그 반대의 경우로서 미치요와의 영원한 이별을 상상해 보았다. 그때는 하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의지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그는 그 수단으로서 아버지나 형수가 권유하는 결혼에 생각이 미쳤다. 그러고는 그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

34) 윤은경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それから』 고찰-간통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일본언어문 화학회 2007 p.13 (참조)

든 관계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과 미치요와 자신과의 사이에 지금과 같은 관계가 생겼고, 이 상태에서 자신에게 기혼자라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서 지금과 똑같은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리라고는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뒤, 사가와 아가씨와의 정략결혼을 거절하고 미치요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자연의 자식」이 되기로 결심한다. 다이스케가 「자연의 자식」이 되겠다고 결심을 한 후에는 아버지와 부딪쳐야 하며, 형과 형수, 히라오카와도 부딪쳐야만 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사회도 있다. 하지만 다이스케는 이들과 싸울 각오를 다짐하며 여태까지의 애매모호한 모습을 버리고 전에 없던 용기를 보이며 자신의 결심을 가족들에게 드러낸다.

「僕は今度の縁談を断ろうと思う」…(中略)… 「僕は今まで結婚問題に就いて、貴方に何返となく迷路を掛けた上に、今度もまた心配して貰っている。僕ももう三十だから、貴方の云う通り、大抵な所で、お勧め次第になって好いのですが、少し考えがあるから、この縁談もまあ已めにしたい希望です。」(十四, p.260)

“저 이번 혼담을 거절할 겁니다.”…(중략)… “전 지금까지 결혼 문제에 대해서 형수님께 몇 번이나 폐를 끼쳤고 이번에도 또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서른이나 되었으니 형수님 말씀대로 적당한 선에서 형수님이 권하시는 대로 결혼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이번 혼담도 없었던 것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이스케는 자신의 결혼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았고, 적극적으로 사가와 딸과 결혼시키려했던 형수에게 먼저 「저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라며 정중하게 혼담을 거절한다. 그리고 이 거절은 자진해서 자신의 운명의 절반을 파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의 자식」과 「의지의 인간」의 기로에 서서 자신의 이상을 조금만 낮추고 의지의 인간을 선택했다면 다이스케가 원하는 고등유민 삶은 살지 못하더라도 사가와 딸에 의해 경제적 원조는 끊기지 않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미치요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자연의 자식」 이기를 선택했다는 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운명의 절반을 파괴했다는 것의 의미이다. 그리고 곧바로 다이스케는 미치요를 만나 전후 사정을 설명하며 자신의 결심을 고백한다.

「僕の存在には貴方が必要だ。どうしても必要だ。僕はそれだけの事を貴方に話したい爲にわざわざ貴方を呼んだのです」(十四, p.280)

(“나의 존재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나는 그것만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서 일부러 당신을 부른 것입니다.”)

다이스케의 고백은 정략결혼이 성행하던 당시와는 다르게 당사자에게 직접 고백을 하는 것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다이스케가 말하는 미치요가 필요하다는 말이 과연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말인지 의문이 든다. 佐藤泰正는 「이것은 진실한 타인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오히려 자기소생을 바라고 구하려는 고백, 동인의 요청이 아닌가」<sup>35)</sup>라고 해석한다. 즉, 다이스케가 말하는 고백은 사랑하는 이에게 하는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며 두 사람의 관계로 인한 처벌을 각오한 선택이기 때문에 자신이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함께하기로 한 미치요마저 없으면 다이스케는 이제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치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이스케가 미치요를 자신의 안식처, 정신적 안정을 위해 필요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래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これほど寝入った自分の意識を強烈にするには、もう少し周囲の物をどうかしなければならぬと、思いながら、室の中をぐるぐる見廻した。それから、又ぼかんとして壁を眺めた。が、最後に、自分をこの薄弱な生活から救い得る方法は、ただ一つあると考えた。そうして口の内で云った。「やっぱり、三千代

35) 佐藤泰正 『「夢と自然のなかの迷路—『それから』論』 『國文學』1976 11月』 佐々木英昭 『漱石文學注釋 8-それから-』 若草書房 2000 p.413 (재인용)



さんに逢わなくちゃ不可ん」(十一, p.180)

(그토록 잠들어 버린 자신의 의식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주위의 사물들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런 보잘 것 없는 생활로부터 자신을 구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역시 미치요를 만나야겠구나.”)

다이스케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자신의 이상에 맞는 상대를 찾기 위해 지금까지 결혼을 미루어 왔고, 그 이상에 맞는 여자가 바로 미치요였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의지하기 힘든 가족과 친구의 관계보다 정신적 안정을 주는 그녀를 택한 결과는 아래의 인용문과 같이 다이스케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貴方の仰る所は一々御尤もだと思ひますが、私には結婚を承諾する程の勇氣がありませんから、斷るより外に仕方がなかりうと思ひます」… (中略) … 「当人が氣に入らないのかい」と父が又聞いた。代助は猶返事をしなかつた。彼は今まで父に對して己れの四半分も打ち明けてはいなかつた。その御蔭で父と平和の關係を漸く持續してきた。けれども三千代の事だけ始めから決して隠す氣はなかつた。自分の頭の上に当然落ちかかるべき結果を、策で避ける卑怯が面白くなかつたからである。彼はただ面白の期に達してないと考へた。従つて三千代の名はまるで口へは出さなかつた。父は最後に、「じゃ何でも御前の勝手にするさ」と云つて若い顔をした。… (中略) … 「己の方でも、もう御前の世話はせんから」(十五, pp.301-302)

(“아버님 말씀은 전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에게는 결혼을 승낙할 만한 용기가 없으므로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 (중략) … “신붓감이 마음에 안드는 거냐?” 하고 아버지가 또 물었다. 다이스케는 여전히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사분의 일도 제대로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그 덕분에 간신히 아버지와 원만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미치요에 대한 일만은 처음부터 결코 숨길 생각이 없었다. 자신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어떤 결과를 술책을 써서 피하려하는 비겁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아직 자백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래서 미치요의 이름은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그럼 뭐든 니 맘대로 해라” 라고 하며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 (중략) … “나도 이제 더 이상 너를 돌봐주지 않을 테니까.”)

다이스케는 아버지에게 정략결혼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저에게는 결혼을 승낙할 만한 용기가 없으므로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다. 이것은 미치요와의 관계를 끊고 사가와 딸과 살거나, 사가와 딸과 결혼하고 미치요를 첩으로 둘 수 있는 용기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아버지는 다이스케를 더 이상 돌봐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의도는 다이스케가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 강제로라도 사가와 딸과 결혼시키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다이스케는 아버지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관을 관철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僕は三千代さんを愛している」

「他の妻を愛する権利が君にあるか」

「仕方がない。三千代さんは公然君の所有だ。けれども物件じゃない人間だから、心まで所有する事は誰にも出来ない。本人以外にどんなものが出て来たって、愛情の増減や方向を命令する譯には行かない。夫の権利は其所までは届きゃしない。だから細君の愛を他へ移さない様にするのが、却って夫の義務だろう」(十六, p.329)

（“나는 미치요를 사랑하고 있어.”

“남의 아내를 사랑할 권리가 자네에게 있을까?”

“어쩔 수 없어. 미치요는 법적으로 자네의 소유야. 하지만 물건이 아닌 인간이니까 마음까지 소유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불가능하지. 본인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애정의 정도나 대상을 명령할 수는 없지. 거기까지는 남편의 권리가 아니야. 따라서 아내의 사랑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남편의 의무가 아닐까?”)

다이스케는 미치요가 자신과 관계를 맺게 된 이유로 히라오카가 그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불행한 결혼생활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으로서 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했다시피 행동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된 히라오카의 문제행동은 직업을 구한 뒤에도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가정에 출입하는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서 미치요를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결혼관으로 본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을 뺏어도 된다는 합리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이스케는 미치요가 이혼하기 전까지는 아직 히라오카의 부인이고, 두 사람이 정신적으로는 의지하고 있다고 해도 그녀는 히라오카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녀를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히라오카가 본가인 나가이가에 보복성 편지를 보냄으로써 다이스케의 운명이 결정되고, 마지막까지 미치요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이 선택한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다이스케가 직업을 찾으러 집을 나서는 것으로 『그 후』는 결말을 맺는다.

정리하면 다이스케의 자연으로의 회귀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고 고등유민으로 살고자 했지만, 히라오카 부부와의 재회에서 미치요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는 고등유민의 삶은 포기하고 미치요와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代助의 職業觀의 변화

다이스케는 자기의 주체성이 확립된 고등유민의 삶을 살고 있는 인물로, 인간의 이상상(理想像)으로서 그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다이스케의 고등유민 생활을 살펴보았을 때, 그는 고등유민이라는 특별한 집단에 포함되어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그의 직업관·결혼관도 고등유민 생활을 중심으로 확립되어 있다. 그래서 다이스케의 직업관·결혼관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다이스케의 직업관은 미치요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뉘는데, 미치요를 만나기 전의 직업관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약 30년간 아버지의 경제력에 의지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직업을 가지려는 시도도, 직업을 갖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일본사회를 부정적, 염세적으로 바라보면서 사회와 관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자칭 고귀한 부류의 인간이라고 여기며 누구보다 우월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三十になって遊民として、のらくらしているのは、如何にも不体裁だな」

代助は決してのらくらしているとは思わない。ただ職業の爲に汚されない内容の多い時間を有する、上等人種と自分を考えているだけである。(三, p.40)

“서른이나 되어서 한량처럼 빈둥거리는 것은 아무래도 보기 좋지 않구나.”

다이스케는 결코 빈둥거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은 직업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귀한 부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다이스케는 항상 아버지에게 직업을 가지라는 권유를 받지만, 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매달 아버지에게서 생활비를 받고 있다. 이 생활비는 그의 「직업에 더럽혀지지 않은 것은 ‘상등인종’이다」라는 논리에 영향을 주었다. 남들이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바쁘게 움직일 때 그는 굳이 자신이 벌지

않아도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생활비로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자신만의 세계에서 사색에 잠기는 것이 그의 생활이었다. 그리고 그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직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彼は人の羨む程光澤の好い皮膚と、労働者に見出しがたい様に柔らかな筋肉を有った男であった。彼は生まれて以来、まだ大病と名のつくものを経験しなかった位、健康に於いて幸福を享けていた。彼はこれこそ、生甲斐があると信じていたのだから、彼の健康は、彼にとって、他人の倍以上に価値を有っていた。彼の頭は、彼の肉体と同じく確かであった。(十一, p.177)

(그는 남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윤이 나는 피부와 노동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드러운 근육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직 큰 병이라고는 앓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에 있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래야만 사는 보람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건강은 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배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가 건강한 청년임에도 일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何故は働かないって、そりゃ僕が悪いんじゃない。つまり世の中が悪いのだ。もっと、大袈裟に云うと、日本對西洋の關係が駄目だから働かないのだ。」(六, p.102)

(“왜 일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말하자면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좀 더 거창하게 말하자면 일본과 서양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거야.”)

小西甚一은 서양문화의 유입에 대해서 「서양 정신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한성에 일본인의 눈을 열어 주었다. 종래의

의식에서는 추악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던 것까지, 가치 있는 것으로 추구 되기에 이르렀다.」<sup>36)</sup>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하지만 다이스케가 일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과 서양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일본이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는 것에 대해 무리하게 선진국이 되려고 해서 오히려 실(失)을 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일본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나라의 빛을 갚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이며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 일다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이스케가 순수하게 일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빵과 물을 떠난 경험」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반감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다.

소세키는 타인을 위해 일을 할수록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되므로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와는 다르게 다이스케는 타인을 위해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취미생활 위주인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함으로서, 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했다. 이렇게 다이스케는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고등유민 생활을 기준으로 한 고상한 생활을 원하고 있었고, 이것은 그가 예술가나 학자와 같은 도락(道樂)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예술가나 학자라고 하는 자들은 이 점에서 모두 제멋대로 하는 자들입니다만, 그 제멋대로 하는 성격 때문에 그들의 길에서 성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도락은 곧 본래의 직업[本職]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때가 아니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장식하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뻔뻔스러운 도락자이지만 이미 그 성질상 도락본위의 직업을 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강요하거나 또는 억지로 자연을 왜곡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 삶을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sup>37)</sup>

위의 인용문은 1911년(明治44) 아카시(明石) 지방에서 개최된 『직업과 도

36) 小西甚一 김분숙 옮김 『일본문학사』 고려원 1995 p.224

37) 나츠메 소세키 황지현 옮김 『도락과 직업』 『나츠메 소세키 문명론』 소명출판 2004 pp.75-76

락』이라는 소세키의 강연문을 인용한 것으로, 소세키는 도락본위의 직업을 가진 자들로 예술가나 학자를 예로 들었다. 다이스케는 직업은 갖고 있지 않으나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았을 때 그가 도락을 위주로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도락은 결혼관, 직업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치요와 재회하기 전의 다이스케는 마땅한 직업이 없이 미혼자로서 살고 있었지만, 주위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재의 자신에 만족하고 있었고,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여성들을 만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굳이 도시인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주는 결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졌다. 그리고 이 결혼관은 「요즘 같은 세상에 변함없는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을 위선자」라는 논리를 만든다. 즉, 다이스케는 정략결혼으로 인한 게이샤와 같은 삶은 세상에 만연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미치요가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낸 후로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지만 미치요에게서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기 전에는 사가와 아가씨와 결혼해야 할지, 미치요를 선택해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미치요를 선택 한 후를 상상해보았을 때 가족과의 관계가 끊겨 물질적 풍요로움도 포기할 정도의 각오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를 선택하기에는 다이스케의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미치요에게 고백한 이후로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운명으로 인해 책임감도 무거워졌음을 느낀다. 그녀를 책임지려면 이상만을 좇는 모습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여 미치요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직업을 구하기로 결심한다.

彼は第一の手段として、何か職業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た。けれども彼の頭の中には職業と云う文字がある丈で、職業其物は体を具えて現れて來なかつた。(十六, p.303)

(그는 첫 번째 수단으로 뭔가 직업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직업이라는 단어만 맴돌 뿐 직업 그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떠오르지는 않았다.)

다이스케가 지금 직업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첫째, 직업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직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佐々木英昭는 다이스케가 직업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 「이제까지 「빵을 얻는 경험」을 「열등」이라고 생각하여 거절하고, 「직업으로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직업」으로서 「건강을 갖추고», 「내면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직업이 「수박겉핥기」의 「문자」로만 의식되고 있다.」<sup>38)</sup>고 해석하고 있다. 다이스케는 고등유민으로서, 아버지의 경제력을 대가 없이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이스케가 난관에 부딪혀 고민하고 있는 직업이란 무엇인가? 소세키가 생각한 직업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직업이라는 것은 요컨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의미」<sup>39)</sup>라고 말했다. 직업으로 타인에게 베품으로써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나의 것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미치요를 선택함으로써 취미 생활을 하며 한가하게 지내는 것을 포기하고 먹고 살기 위한 일을 구해야만 했다. 하지만 자신이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을 상상하자, 확실하게 자신이 직업을 구할 수 있을지, 직업을 구한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의 막막함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둡게만 보였다. 이렇게 직업으로 인한 미래의 두려움에 빠진 다이스케는 미치요를 찾아가 솔직하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 한다.

代助は平生から物質的状況に重きを置くの結果、ただ貧苦が愛人の満足に働かないと云う事だけを知っていた。だから富が三千代に對する責任の一つと考えたのみで、それより外に明らかな觀念はまるで持っていなかった。

「道義上の責任じゃない、物質上の責任です」

「そんなものは欲しくないわ」

「欲しくないと云ったって、是非必要になるんです。これから先僕が貴方とどんな新しい關係に移って行くにしても、物質上の供給が半分は解決者ですよ」(十六 p.309)

38) 佐々木英昭 『漱石文學注釋 8-それから-』 若草書房 2000 p.445

39) 나즈메 소세키 황지현 옮김 『도락과 직업』 『나즈메 소세키 문명론』 소명출판 2004 70p



(다이스케는 평소 물질적인 면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빈궁한 생활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부유함이 미치요에 대한 책임의 하나라고 생각했을 뿐, 그 밖에 어떤 명확한 관념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도의상의 책임이 아니라 물질적인 책임 말어요.”

“그런 것은 원하지도 않아요.”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필요해질 거요. 이제부터 내가 당신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공급이 그 해결책의 반은 차지할 거요.”)

다이스케는 미치요에 대한 책임 속에 물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상황이었다. 다이스케는 미치요와 재회한 이후로 감자를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히 여기게 된다면 인간은 끝장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살던 때에는 금전에 대해서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자신은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이스케가 히라오카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는 고등유민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우메코의 편지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그녀는 다이스케에 대한 연민을 품고 생활비 약간을 보냄으로서, 아직 다이스케의 결혼문제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음을 보인 것이다.<sup>40)</sup> 그의 결혼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이유는 가족들이 그가 선택한 여자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기 전이었고, 가족들은 그가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사가와 아가씨와 같은 여성을 선택했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에 인용되는 히라오카와의 대면 후로 다이스케의 고등유민 삶은 완전히 끝을 맺게 된다.

「三千代さんをくれないか」… (中略) …「遣る。遣るが、今は遣れない。僕は君の推察通りそれ程三千代を愛していなかったかも知れない。けれども悪んじゃいなかった。三千代は今病氣だ。しかも余り軽い方じゃない。寢ている

40) 佐々木英昭 『漱石文學注釋 8-それから-』 若草書房 2000 p.394 (참조)

病人を君に遣るのは厭だ。病氣が癒るまで君に遣れないとすれば、それまでは僕が夫だから、夫として看護する責任がある」(十六 p.331-332)

(“미치요 씨를 나에게 주지 않겠나.” … (중략) … “주지. 하지만 지금은 줄 수가 없네. 나는 자네 짐작대로 미치요를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어. 미치요는 지금 병에 걸려 있네. 게다가 병세가 그리 가벼운 편이 아니야. 누워 있는 환자를 자네에게 주기는 싫네. 병이 나을 때까지 자네에게 줄 수 없다면 그때까지는 내가 남편이니 남편으로서 간호할 책임이 있어.”)

다이스케가 히라오카와 대면하지 않았더라면 그 동안에 형수의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와 미치요의 관계가 알려지는 시간도 늦춰졌을 것이다. 하지만 다이스케는 미치요와 함께하기로 결심한 이상, 고등유민 삶을 포기해야 했다. 정략결혼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하고 미치요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일을 확실히 하기 위해 히라오카에게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기를 바랐다. 또한 히라오카가 자신의 부인과 관계를 이어간 것에 대해서 두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다이스케의 생각과는 다르게 히라오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는 듯 했지만 한 통의 편지를 나가이가에 보냄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해 버린다.

「實は御前に少し聞きたい事があって來たんだがね」と封筒の裏を代助の方へ向けて、「この男を知ってるかい」と聞いた。其所には平岡の宿所姓名が自筆で書いてあった。「知ってます」と代助は殆んど器械的に答えた。「元、御前の同級生だって云うが、本当か」「そうです」「この男の細君も知ってるのかい」「知っています」兄は又扇を取り上げて、二三度ぱちぱちと鳴した。それから、少し前へ乗り出す様に、聲を一段落した。「この男の細君と、御前が何か関係があるのかい」(十七, p.339)

“실은 너에게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 왔는데.”라고 말하며 봉투 뒷면을 다이스케에게 보이고서는, “이 사람을 아니?”하고 물었다. 거기에는 히라오카의 주소와 이름이 자필로 쓰여 있었다. “압니다”하고 다이스케는 거의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전에 네 동급생이었다고 하는데 정말이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도 아냐?” “압니다.” 형은 다시 부채를 접어서 두세 번 팔랑거렸다. 그리고 나서 약간 몸을 앞으로 숙이고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 사람의 아내와 네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형 세이고가 찾아와 다이스케에게 편지 한 통을 보이며, 편지의 내용이 진실이냐고 묻는다. 세이고가 가져온 한 통의 편지는 히라오카의 자필편지로서 다이스케가 히라오카에게 말해줬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다이스케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답하자 형은 아버지가 전달하라고 했던 말과 함께 다이스케와 절연을 해버린다고 말한다. 다이스케는 히라오카의 편지로 인해 아버지와 형의 절연 선고와 함께 경제력 원조가 끊겨 버린다. 이는 미치요를 선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풍요로운 생활과 맞바꾸게 된 것이고, 인간은 본디 늘면서 먹고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시켜준다. 그리고 다이스케가 직업을 구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그의 직업관이 미치요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변해 진정한 사회에 참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 Ⅲ. 結論

『그 후』-다이스케의 정략결혼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代助의 人物의 性格에서는 다이스케가 아버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고등유민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의 현실감각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고 있었고, 그의 이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먹기 위한 직업」 보다는 「빵과 물을 떠난 직업」을 원했고, 결혼은 정략결혼이 아닌, 연애결혼을 원하고 있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을 가하는 것도, 당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다이스케는 고등유민 생활로 인해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세계에 깊이 빠져있었다. 현실감각이 배제된 그의 이상은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이스케는 자신이 누구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판단한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이것은 평소에 자신이 직업을 구하지 않는 이유와 정략결혼문제에서 나타난다. 또한 다이스케는 고등유민으로 살면서 일본사회에 대해 비판적이며, 부정적·염세적으로 보는 태도와 nil 아드미라리(nil admirari)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해왔던 것에 대해 부질없음을 느껴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理想主義者로서의 代助에서는 결혼에 흥미가 없었던 다이스케가 결혼은 자신을 속박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자연스럽게 펼쳐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가족들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이스케의 결혼관 중의 하나인 게이샤설은 정략결혼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도시인을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은 도시인의 결혼이 아닌 연애결혼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셋째, 政略結婚의 희생양으로서의 代助에서는 전통적 가족사회에 있어서, 결혼문제는 당사자의 의견은 거의 무시된 채 부모들이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결정되곤 했기 때문에 다이스케의 아버지도 이 같은 개념에서 다이스케가 아무 불평 없이 따를 것으로 여기며 며느리 후보자를 정해놓고 그에게 정략

결혼을 강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들이 사가와 아가씨와 결혼하길 원하는 이유는 다이스케의 결혼상대가 미치요와 같이 아무런 집도 절도 없는 여자가 아니라, 집안을 일으켜 줄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가진 이름 있는 집안의 아가씨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가족들은 다이스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정략결혼을 성사시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얻으려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代助의 自然으로의 回歸에서는 다이스케가 과거에 미치요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를 친구의 동생 이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년 뒤 미치요와 재회를 한 뒤로는 다이스케가 그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를 찾게 된다. 미치요는 백합, 은행잎 머리, 진주 반지로 자신의 사랑을 확인 시켜주었고, 그것은 다이스케가 원하는 ‘변함없는 사랑’과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이스케의 머릿속에서 누구보다 먼저 떠올랐던 미치요에게서 정신적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그녀의 사랑과는 또 다른 사랑의 확신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풍요로운 삶을 버리는 「자연의 아이」가 되기를 결심한다.

마지막으로 代助의 職業觀의 變化에서는 다이스케의 직업관은 미치요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뉘는데, 미치요를 만나기 전의 직업관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빵과 물을 떠난 경험」을 중시하는 다이스케는 일다운 일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이스케가 미치요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느껴 미치요를 선택한 이후로는 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직업을 구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다이스케는 직업에 대한 흥미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조차 없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경제력을 대가 없이 받고 살아온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다이스케는 미치요를 선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풍요로운 생활과 맞바꾸게 되고, 인간은 본디 놀면서 먹고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시켜준다. 그리고 그가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직업을 구하겠다고 집을 나서는 행위는 비로소 완전한 성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고 진정한 사회에 참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 IV. 參考文獻

<텍스트>

『それから』新潮文庫 2010

佐々木英昭 『漱石文學注釋 8-それから-』若草書房 2000

나쓰메 소세키 윤상인 옮김 『그 후』민음사 2010

<辭典類>

三好行雄 『夏目漱石事典』學燈社 1990

<單行本>

石原千秋·小森陽一 『漱石研究』(第10号)翰林書房 1998

石原千秋 『日本文學研究資料新集14 夏目漱石-反轉するテキスト』有精堂 1986

小西甚一 김분숙 옮김 『일본문학사』고려원 1995

권혁건 『나쓰메 소세키』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쓰메 소세키 나의 개인주의 외』2004

나쓰메 소세키 황지현 옮김 『나쓰메 소세키 문명론』소명출판 2004

송혜경 『연애와 문명』문 2010

유상희 『나쓰메 소세키 연구』보고사 2001

조영석 『나쓰메 소세키의 문학세계』보고사 2001

<雜誌>

『國文學-夏目漱石の全小説を讀む』岩波書店 1994 1月

<論文>

김송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마음(こころ)』 연구-등장인물의 에고이즘을 중심으로-』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노근숙 『『それから』論 -代助を中心に-』古岩黃聖圭博士 華甲記念論文集 1993

박명수 『『それから』考 -사랑과 상징적 수법-』 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문화학보 1996

박현자 『夏目漱石의 『それから』에 관한 研究-『それから』의 基本時點을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신윤주 『나쓰메 소세키 작품연구 -이미지 · 불안 · 시대상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9

신현철 『漱石文學에 있어서 戀愛와 女性の 問題 -それから를 中心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오경 『가족관계로 읽는 『그 후(それから)』』 덕성여자대학교 2006

용석인 『明治青年의 結婚觀-『夏目漱石』의 作品을 中心으로-』 학교 연도

유상희 『日本日文學研究<七> - 日本文學編(3)』 1998

윤은경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それから』 고찰-간통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07

이숙향 『夏目漱石의 『それから』 고찰-인간 내부의 '자연'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조영석 『소세키의 『그후(それから)』 연구, -다이스케(代助)의 성격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學會 2001

차민경 『나쓰메 소세키의 『그 후』 연구-참살 · 할복 · 정략결혼-』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1

최혜수 『韓日근대소설 작중 지식인의 유형 비교연구-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소설의 '高等遊民'과 염상범 소설의 '심퍼사이저'의 비교-』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2003

<웹페이지>

<http://hennkutubunnkazinn.blog.fc2.com> 高田知波 『夏目漱石「それから」もう一度讀む名作 テキスト論からバイアスの解放』 1998